

## 장애인 취업상담,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개 관계기관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운영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도 이제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30일(화) 원거리 거주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 고용센터 등 26개소에서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정기적으로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과의 1:1 상담을 통해 ▲구직 등록 ▲취업알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 특성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취업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후속 서비스와도 연계될 수 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했던 장애인 구직자들도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담 가능 기관과 운영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거리와 이동의 제약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구직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고용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책임자	부 장	허성주 (031-728-7011)
		담당자	대 리	지승희 (031-728-7269)

